

中東산유국의 석유산업 동향

1. 석유수급 동향 및 전망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량은 1985년 1,734 만b/d를 최저로, 그후 서서히 증대되어 1992년에는 2,690만b/d로 늘어났다. 非OPEC의 생산량은 1985년 4천만b/d의 한계를 넘은 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의 석유생산량에 차지하는 OPEC의 비율은 '92년에 4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국내소비량을 뺀 석유의 수출 여력 중 OPEC의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OPEC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세계 석유제품 수출량의 30%를 넘고 있으나, 원유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OPEC의 비율 60%에 비하면, 낮은 상태지만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중 2010년 석유공급 예측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 IEA 에너지 전망의 각 케이스 전제조건

① 기준 케이스

실질 원유가격을 '95년=21.9 \$/b, 2000년=27.3 \$/b, 2005년=30 \$/b, 2010년=30 \$/b로 설정.

또 경제 성장률은 OECD가 2.4%/年, 舊 공산권 1.4%/年, 기타지역 5.1%/年, 세계 평균에서는 3.0%/年으로 설정.

② 高성장 케이스

기준 케이스에 비해 세계의 경제 성장을은 舊소련, 동구를 제외하고, 기타지역, 즉 OECD 및 기타 발전도상 지역에 일률적으로 25%/年의 높은 성장을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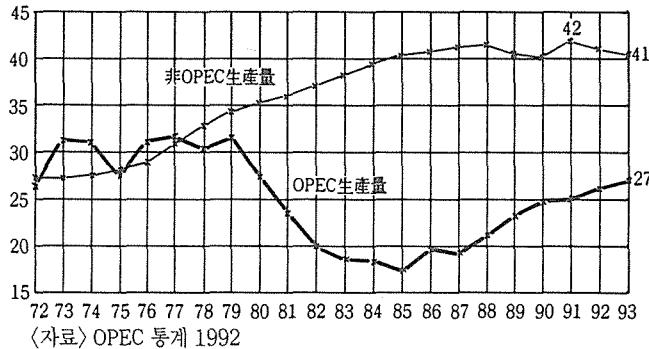
③ 低성장 케이스

기준 케이스에 비해 세계의 경제 성장을, 즉 OECD 및 기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20%/年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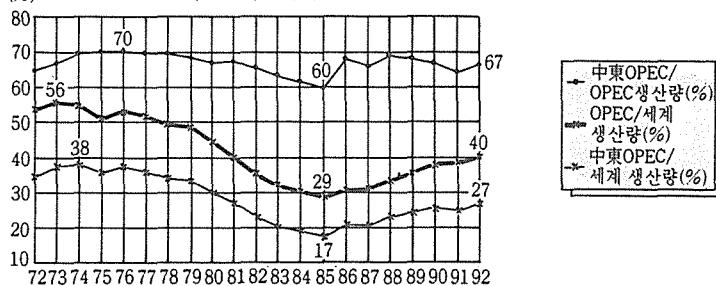
④ 低價格 케이스

석유가격은 1993년 실질 가격이 20 \$/b에 그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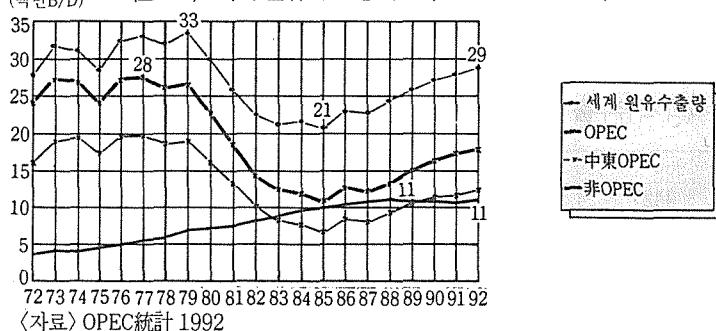
〈표-1〉 OPEC와 非OPEC의 석유 생산량 추이



〈표-2〉 세계의 석유 생산량과 OPEC비중



〈표-3〉 세계 원유 수출량 추이 (OPEC 및 非OPEC)



〈표-4〉 IEA의 석유공급 전망

(단위 : 백만B/D)

	1990 평균		2000 평균		2010					
	기준	고성장	기준	고성장	기준	고성장	기준	고성장	기준	고성장
증동 및 베네수엘라	20.0	29.9%	31.1	40.1%	45.4	48.9%	53.5	52.9%	39.8	45.8%
OECD	15.9	23.7%	15.3	19.7%	13.8	14.9%	14.0	13.8%	13.5	15.5%
NIS/CEE	11.8	17.6%	6.6	11.1%	10.6	11.4%	10.6	10.5%	10.6	12.2%
ROW	17.9	26.7%	20.8	26.8%	21.1	22.7%	21.1	20.9%	21.1	24.3%
Process gain	1.4	2.1%	1.7	2.2%	1.9	2.0%	1.9	1.9%	1.9	2.2%
总计	67.0	100.0%	77.5	100.0%	92.8	100.0%	101.1	100.0%	86.9	100.0%
									99.5	100.0%

가스가격도 기준 케이스와 같은 2000년에 3\$/MCF(미국 가격)까지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그 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

2. 석유수출 및 재정상황

걸프만안의 OPEC 지역을 제외한 국가들의 원유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있다. 또 걸프 지역의 OPEC 국가 중에도 이란, UAE, 카타르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증산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 非OPEC의 증산, 전쟁 및 전비부담 및 서방국가들의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증가가 둔화되어 중동 국가들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석유생산을 위한 거액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UAE를 제외하고 각국은 90% 이상의 석유수출의존도를 보

〈표-5〉 석유생산시설 확대계획에 기초한 투자비용의 추산

(1) + (2) + (3)

	각국의 석유생산능력 (백만b/d)			'93~2000 능력유지시 투자 코스트		'93~95 능력증가시 투자 코스트		'96~2000 능력증가시 투자 코스트		투자 코스트 '93~'2000
	1992	1995	2000	\$ /b/d	의 \$	\$ /b/d	의 \$	\$ /b/d	의 \$	의 \$
사우디아라비아	9.0	10.0	11.0	150	112.0	2,500	25	4,000	40	177.0
이라크	0.4	2.4	3.4	160	31.2	500	10	1,000	10	51.2
이란	2.7	4.8	5.0	200	70.2	6,000	68	8,000	16	152.2
쿠웨이트	1.5	2.7	3.0	170	34.0	2,000	24	3,000	9	67.0
UAE	2.5	2.7	2.9	200	40.0	6,000	12	7,000	14	66.0
카타르	0.4	0.6	0.6	200	8.4	4,000	8	6,000	—	16.4
연안OPEC	17.5	23.2	25.9		295.8		145		89	529.8
리비아	1.7	1.8	2.0	300	40.9	8,000	12	10,000	20	72.9
알제리	0.8	0.9	1.0	300	19.1	15,000	7.5	15,000	15	41.6
나이지리아	2.0	2.4	2.4	300	51.1	12,500	43.75	15,000	7.5	102.35
가봉	0.3	0.3	0.4	300	7.5	6,000	1.8	7,000	2.8	12.1
베네수엘라	2.5	3.0	3.5	300	68.5	5,000	25	6,000	30	123.5
에콰도르	0.3									
인도네시아	1.5	1.5	1.3	400	40.1	13,000	—	15,000	—	40.1
非沿岸OPEC	9.1	9.9	10.6		227.2		90.05		75.3	392.55
OPEC	26.6	33.0	36.4	평균 299	522.8	평균 6,192	235.1	평균 7,462	164.3	922.2
對OPEC원유수요	24.4	28.0	36.7							

〈주〉 이라크 원유수출은 '94년 개시, '95년 200만b/d, 2000년 300만b/d로 측정

〈표-6〉 中東산유국의 석유수출 추이와 각국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 달러,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사우디아라비아	1,162 (97%)	755 (96%)	428 (93%)	342 (91%)	242 (90%)	170 (87%)	193 (85%)	202 (85%)	241 (85%)	401 (90%)	437 (91%)	476 (94%)	401
이란	121 (96%)	192 (99%)	190 (98%)	123 (99%)	156 (98%)	63 (75%)	101 (92%)	92 (90%)	108 (80%)	167 (92%)	153 (95%)	157 (90%)	142
쿠웨이트	138 (86%)	88 (81%)	97 (85%)	107 (92%)	98 (94%)	64 (86%)	75 (91%)	64 (83%)	93 (81%)	55 (77%)	14 (93%)	62 (93%)	91
UAE	188 (86%)	153 (84%)	122 (79%)	130 (81%)	118 (80%)	75 (74%)	87 (68%)	74 (60%)	113 (73%)	156 (73%)	148 (67%)	145 (69%)	142
이라크	104 (99%)	101 (98%)	78 (80%)	94 (86%)	107 (87%)	69 (77%)	114 (99%)	110 (99%)	145 (99%)	95 (100%)	4 (99%)	3 (92%)	3
카타르	54 (94%)	41 (95%)	31 (93%)	44 (97%)	31 (90%)	17 (93%)	18 (92%)	17 (77%)	20 (73%)	30 (84%)	22 (81%)	32 (95%)	26

〈주〉 괄호안은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93년 예측은 World oil Trends의 추계

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83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이후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도 1991년에는 259억달러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라크도 걸프전 이후 국내경제가 파산 직전이며, UAE만 흑자 호조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각국의 세출은 세입을 상회하였고, 차입금, 국채발행, 대외자산 처분등의 시책에 따라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

3.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부문은 지난해 6월 14일 각
료회의 결정으로 SAMAREC이 사우디 아람코로 흡수
통합되었다.

사우디 아람코사는 1989년에 개시한 원유생산 확대 계획(*Crude Oil Expansion Program = COEP*)에 의해, 1995년까지 1,000만 b/d의 석유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상회할 정도로 사우디의 지속가

〈표-7〉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 확장 자금소요 ('1991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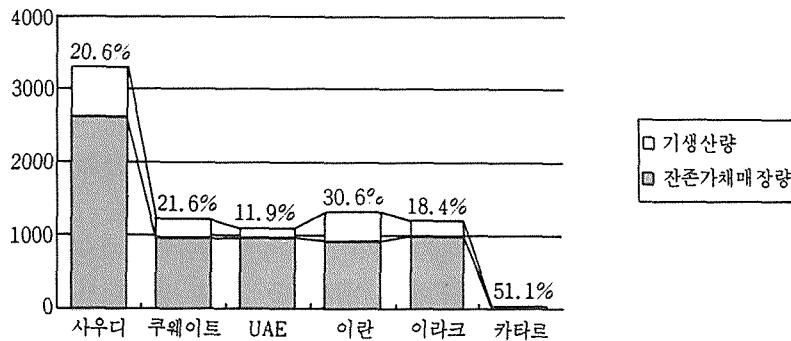
유전명	예산액 (百萬\$)	1991생산능력 (1,000B/D)	1995생산능력 (1,000B/D)	비중 (API)	활용률 (%)
Ghawar Fields	2,500	4,700	5,300	34	1.91-2.15
Manifa	2,500	200	300	28	2.97-3.66
Safaniya	2,090	1,300	1,500	27	2.93-2.96
Qatif	1,500	100	200	33-34	2.45-2.92
Najd Fields	1,500	-	300	45 +	0.06
Zuluf	1,000	500	700	32	2.41
Marjan	500	100	570	33	2.42
Berri	500	700	700	32-34	1.14-2.00
Khurais	300	75	150	33-36	1.89
Khursaniya	235	75	150	31	2.63
Abu Hadraya	195	50	75	35	1.51-2.40
Harmaliya	120	50	75	35	1.65
Abqaiq	100	850	850	37	1.32-2.80
Shaybah	2,000	-	-	40-42	N.A
 	16,000	8,700	10,870		

〈표-8〉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생산 능력의 유종별 예측

(단위 : 천B/D)

	1993	1995	1998	2000	2005
Arabian Super Light		150	150	150	150
Arabian Extra Light	1,030	1,050	950	850	1,300
Arabian Light	5,320	5,300	5,500	5,300	5,350
% ASL+AXL+AL	66%	66%	65%	64%	65%
Arabian Medium	1,990	2,015	2,015	2,010	2,055
Arabian Heavy	1,300	1,300	1,600	1,600	1,600
% AM+AH	34%	34%	35%	36%	35%
計	9,640	9,815	10,215	9,910	10,455

〈표-9〉 中東지역의 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율



능한 원유생산능력은 증대되어 왔으며, 지난해 말에 960만b/d, '94년에는 1,000만b/d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1,000만b/d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5% 내지 10% 이상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우디가 현재 생산능력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유전은 세계최대의 가와르 유전의 일부와 하위야 유전의 일부이고 이들 유전의 개수 및 설비보수만으로 이미 1992년까지 초경질 및 中輕質의 원유를 포함하여 약 100만b/d의 생산능력 확대가 실현되었다. 한편 사우디 동부 지역내의 북부에 있는 기존유전의 사파니아, 마잔, 줄루프, 베리등의 유전에서 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5개소의 가스, 기름 분리 플랜트

(GOSP)의 사용이 시작되어, 적어도 178만b/d의 생산 능력 확대가 이루어졌다.

1992년도에 들어와 리야드의 남방 200km에 있는 하우다 유전의 개발 작업이 개시되었다. 이 유전의 석유는 경질이며 API도는 40도이고, 황분은 0.6%, 생산시설

능력은 15만b/d로 설계되었다.

한편, 종래에 탐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변경 지역에서의 탐사작업에도 아람코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기간 계약에 의해 원유를 공급한 고객수는 48개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대 석유시장인 美國, 유럽,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라스티누라 정유공장은 1990년 12월 화재 이후 30만b/d의 처리량을 보이고 있다. 금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라스티누라 정유공장의 고도화 계획은 1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중에는 연속 촉매 재생식 접촉 개질장치(CCR), 수소화 분해시설등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표-10〉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진출 현황 ('93년 1월 현재)

진출국	시기	진출내용	참여비율	주유소수	비고
美 國	1988. 11	택사코사의 미동부 23주 경제 판매부문의 권익, 딜라웨어 정유공장(14만b/d), 콘벤트 정유공장(22.5만b/d), 포토아사 정유공장(10만b/d)	50%	11,500	원유공급 60만b/d
	1992. 2	포토아사 정유공장(15만b/d), 피크스프링 정유공장(6만b/d), 정유공장 부속시설	50%	3,000	
韓 國 필리핀	1991. 7	쌍용정유(9만b/d)	35%	—	15만b/d CDU건설
	1993. 12	국영 페트로사 주식회득	40%	800	

〈표-11〉 OPEC의 해외 석유정제능력 ('92년)

	정제능력 지분				원유공급 계약량			
	아시아/극동	서유럽	美國	계	아시아/극동	서유럽	美國	계
알제리	-	-	-	-	-	-	-	-
에콰도르	-	-	-	-	-	-	-	-
가봉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이란	14.9	-	-	14.9	14.9	-	-	14.9
이라크	-	-	-	-	-	-	-	-
쿠웨이트	-	260.2	-	260.2	-	260.2	-	260.2
리비아	-	231.3	-	231.3	-	383.0	-	383.0
나이지리아	-	-	-	-	-	-	-	-
카타르	-	-	-	-	-	-	-	-
사우디아라비아	94.5	-	307.5	402.0	270.0	-	550.0	820.0
UAE	-	87.6	-	87.6	-	112.8	-	112.8
베네수엘라*	-	221.2	646.5	867.7	-	263.2	708.0	971.2
계	109.4	800.3	954.0	1863.7	284.9	1019.2	1258.0	2562.1
정제능력(1992)	10568.6	15011.2	15575.0	41154.8	10568.6	15011.2	15575.0	41154.8
Share of Foreign OPEC Ref. Ca. %	1.04	5.33	6.13	4.53	2.70	6.79	8.08	6.23

* 베네수엘라는 휴스톤의 루멜 주유소(26.5만b/d)의 50% 지분 및 임차중인 네덜란드령 안탈레스 큐라카오 정유공장(32만b/d)
불포

〈표-12〉 이란의 해외 진출 현황('93년말 현재)

진출국	시기	진출내용	참여비율	비고
파키스탄	1991. 5	카라치에 12만B/D 건설	50%	1995 완공예정
인도	1979년 이전	마드拉斯 정유공장(6만b/d)	13%	-

〈표-13〉 사우디아라비아 정유공장의 증설과 전망

(단위 : 천B/D)

정유공장	조업자	1986	1990	1992	*1994	*2000
Ras Tanura	Saudi Aramco	450	300	300	450	530
Jeddah	"	90	90	105	105	105
Riyadh	"	135	135	135	135	135
Yanbu(내수용)	"	170	170	170	170	300
Yanbu(수출용)	" /Mobil		250	325	325	325
Jubail	" /Shell	170	170	295	295	295
Rabigh	" /Petrola	250	250	325	325	325
Mina Saud	Getty	50				
Khafji	AOC	30	30	30	30	30
계		1,345	1,395	1,685	1,835	2,045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82년부터 마스타 가스 프로젝트의 제1단계가 개시되고, 이어 제2단계가 1986년부터 개시되었다. 총액 120억달러에 이르는 방대한 계획에 의해 4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 처리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88년 텍사코와의 합병회사 스타 엔터프라이즈사를 설립하여 美國에 진출하여, 60

만 b/d 와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 필리핀에 진출하고 있다.

4. 0|란

이란은 석유담당부서인 석유부하에 NIOC를 중심으로 NIGC(National Iranian Gas Co.), NPC(National

〈표-14〉 이란의 정유공장 증설과 전망

(단위 : 천B/D)

정유공장	1980	1986	1990	1992	*1994	*2000
Abadan	635		117	297	390	500
Tehran	220	220	220	220	240	240
Isfahan	240	240	243	243	243	243
Tabriz	80	80	99	99	110	110
Shiraz	40	40	40	40	40	40
Bakhtaran	15	15	27	35	35	35
Laban	20	20	20	20	20	20
Masjid-I-Sulaiman	70				150	300
Arak						232
Bandar Abbas						
計	1,320	615	766	954	1,228	1,720

〈표-15〉 쿠웨이트 정유공장 증설과 전망

(단위 : 천B/D)

〈표-16〉 UAE의 정유공장 증설과 전망

(단위 : 천 B/D)

정유공장	1982	1986	1990	1993	*2000
Umm Al Nai I	15				
Umm Al Nai II		60	72.5	72.5	85
Ruwais	120	120	120	120	270
합계	135	180	192.5	192.5	355

Petrochemical Co.)등이 석유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란의 원유생산량은 OPEC의 생산쿼터에 의해 상한이 규제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석유생산능력을 금년중에 400만b/d, 그 후 5년 이내에 450만b/d로 증대시킬 계획이며, 정부내의 일부관리는 500만b/d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석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생산 비용의 증대와 어려운 경제상황 및 투자환경을 고려하면, 생산능력은 1994년의 400만b/d, 2000년의 450만b/d보다도 낮은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란은 아시아 시장과 유럽시장의 시장성격을 구별하여 아시아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고, 유럽은 매매 중심의 시장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현재對美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란의 정유공장 시설능력은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1993년말 이란의 명목상 정제능력은 110만b/d이었고, 명목적으로는 약 110만b/d의 국내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렇지만 고도화 시설 부족으로 국내의 경질 제품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여, 1992년에 3만4천b/d의 휘발유, 등유, 제트유, 경유를 수입하는 한편, 연료유와 나프타 등을 7만7천b/d 수출했다.

이란의 국내수요는 증대하지만, 정제시설 확대 노력은 아직 없다. 앞으로 수요가 2000년까지 년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구증가로 석유제품 소비량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의 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다음의 세계 2위로 700조 입방피트에 달하며, 천연가스 개발과 유효한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각국의 가스 이용 비율을 비교하면 이란은 가스 재투입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인도의 마드拉斯 정유공장 지분의 13%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파키스탄의 카라치의 12만b/d 정유공장에 참여하는 한편, 파키스탄, 인도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5.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현재 KPC가 석유산업을 총괄하고 있다. KPC 산하에 KOC, KNPC등 자회사가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석유 생산능력은 1993년 현재 250만b/d이고, 2~3년후에는 300만b/d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 석유부는 쿠웨이트가 2000~2005년에 250~300만b/d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2년말 쿠웨이트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걸프전비는 254억 달러이고 그 밖에 정부지출은 221억 달러에 상당했다.

쿠웨이트는 걸프전의 피해로부터 복구는 순조로이 진행되어 석유생산량도 1991년부터 급격히 증대되었고, 그러나 석유산업을 필두로 걸프전 이후 복구비용이 과대하여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전후 주요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對美 군사비	160억 \$
기타 다국적군 군사비	60억 \$
해외 피난 국민 보조금	70억 \$
석유산업 재건비	100억 \$
기초 인프라 정비비	60억 \$
KIO의 스페인 투자 손실 보전비	50억 \$

합계 = 500억 \$

상기 적자액에 더하여 국방지출비로서 예산외로 12년간 115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준비금은 걸프전 이전에는 750억달러였지만, 전후에는 300억달러로 감소했다.

쿠웨이트는 재정 적자로 석유생산을 가능한 한 증대시키려고 한다.

쉬아이바 정유공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처리량 13만 b/d로 가동을 개시하였고, 걸프전 이전부터 있었던 3개 정유공장도 재가동되었다.

현재 KPC와 구미의 복수기업 사이에 불간 유전 등 쿠웨이트 여러 유전에 대하여 외국기업과 생산분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빈번하다. 이미 일부 유전의 「유충관리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쿠웨이트 기업의 정부 지분이 매각되고 있으며, 전력, 통신, 주유소의 민영화도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쿠웨이트는 가스 생산량의 9억 입방피트 중 4억 입방피트가 정유공장, 산업용, 석유화학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1983년 유럽에서 舊 걸프 석유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1991년 KPI가 소유한 주유소는 6,000개가 넘고, 종업원은 4,000인, 유럽 판매량은 33만 b/d이며, 매출액은 40억 달러이다.

6. UAE

UAE의 7개 토후국 중 80% 이상의 석유 생산을 하는 아부다비 토후국은 1971년 ADNOC를 설립하였고, 1974년에도 동시에 의한 석유산업에의 60% 사업 참여가 달성되었다.

석유 생산능력의 확대계획은 5~10년의 데이터 수집에 기초하여 3~4년 동안 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UAE의 현 생산능력은 240만 b/d로 오는 1995년까지 280만 b/d, 2000년까지 300만 b/d 정도로 생산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또 두바이 생산량이 2000년에는 반감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UAE의 경제에는 큰 문제는 없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非 석유부문의 비율은 지난해 59%까지 도달하여, 석유부문의 GDP하락을 보완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UAE의 비 석유 수출액 중 70%가 재수출되는 것으

로 그중 70%가 두바이의 수출이다. 재 수출선은 이란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UAE의 재정 상황

	1991	1992
GDP(억 달러)	343	352
석유부문	148(47%)	145(41%)
非석유부문	195(57%)	207(59%)

UAE의 석유 수출선으로서는 日本 등 아시아 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생산지분이 원유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여 타 OAPEC 국과는 차이가 있다.

아부다비에는 2개소의 정유공장이 가동 중이며, 주력인 르와이스 정유공장에서는 1995~1996년에 25만 b/d 또는 30만 b/d 까지 증설될 예정이다. 2차 설비도 계획 중이다.

두바이에서도 줄베알리에 15만 b/d의 정유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UAE의 가스 매장량은 1992년 말 205조 입방피트에 달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28억 입방피트('92)이다. 1992년에는 생산된 가스의 80%가 판매되고, 소각된 가스 비율은 20% 정도가 된다.

UAE는 해외 석유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다. 현재 Total사와 스페인의 세후사의 일부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7. 기타 중동국가들

이라크는 증산여력이 크나 정치상황이 증산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가스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만은 현재와 현재 수준과 같은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다. 예멘도 증산이 기대된다.

시리아와 이집트도 현재와 같은 생산이 2000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 〈월간석유. '94.5〉